

보도시점 (전매체) 6. 7.(수) 10:00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나눔회 개최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에 참석하여 업계 애로·건의를 청취
-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어가기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현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825)

□ 추진배경

-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논의

□ 간담회 개요

- (일시) '23.6.7.(수) 10:00 ~ 11:00
- (장소)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5층
- (참석자) 이영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장, 업종별 협·단체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소상공인 업계 현안 발제,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3	(3)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10:03 ~ 10:05	(2)	참석자 소개	
10:05 ~ 10:08	(3)	인사 말씀	이영 장관
10:08 ~ 10:13	(5)	업계현안 발제	소상연합회장
10:13 ~ 10:58	(45)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
10:58 ~ 11:00	(2)	마무리 말씀	이영 장관